출가 문제 놔두고 논하는 불교미래 '공염불'

출·재가는 상호간에 깊이 의존한다. 이 둘이 빚어내는 하모니를 통해 불교는 2500년 이상을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불교공동체 안에서 출가는 주되게 수행·교화를 맡고(법보시), 재가는 교단을 외호(재보시)해왔다. 이러한 역할분담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가공동체가 성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출·재가 문제는 왠지 말을 꺼내기가 껄끄럽고 부자유스럽다. 교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출가공동체의 퇴조에 근본원인이 있다. 한국의 출가공동체는 1990년대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사유화가 급속히 확산됐고, 이에 비례해 공동체성은 크게 약화됐다. 공동체 붕괴의 압력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계율이나 수행풍토, 승가위계, 노후복지 등 오늘날 스님들이 호소하는 고통이나 교단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출가공동체의 퇴조에서 기인하는 것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출가 내에서조차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출가승 상당수가 고급차에 맛난 음식을 즐기며 중상층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 바깥에 있는 대다수의 출가승은 소 경영인처럼 독살이를 하거나 사찰을 부유한다. 그래서 출가승 스스로도 인천의 사표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뜻있는 재가들은 종단과 출가승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그동안 시대조류에 정처 없이 휩쓸려 왔다면 이제는 뼈아픈 자성과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매우 단순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사회문화의 주류인 나라, 예컨대 동남아와 티베트, 최근의 대만 같은 곳에서도 출가승은 공동생활을 하며 수행과 교화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소임이다. 단순히 전통을 잇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교단의 핵인 출가승단을 유지하고 불교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교세가 절대적으로 센 나라에서조차 그러할 진데 한국처럼 종교

출·재가 문제 우선해
출가공동체부터 바로서야
출가승 공동생활이 해답
수행 아닌 것 재가에 맡겨야

간의 경쟁,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상화된 나라, 기독교가 사회주류인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출가승단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불교가 발전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니 불교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오늘날 한국불교 현실에서 출·재가의 문제는 재가의 종단 참여 확대니 하는 국소적인 문제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답은 간단하다. 먼저 출가승의 역할을 불교전통에 입각해 수행과 전법으로 한정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정하고, 사찰운영을 중심으로 한 그 외의 것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둘 재가에게 이양하면 된다.

재가역량 또한 취약하기에 숱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사나 정토회 등 적지 않은 사찰의 경험을 보았을 때 시도가 된다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재가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가의 지도력은 높아질 것이고,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근본적인 대수술이 있지 않고서는 뾰족한 답이 없다.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출가 전통의 현대적 복원 없이는 존경받는 출가승단은 요원하다. 출재가의 문제, 나아가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를 논하는 것 역시 불교의 핵인 출가의 문제를 저대로 놔두고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다. 세 살 어린 아이도 알지만, 팔순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불교계 안에서는 이 문제가 거기에 속한다. 이제 더 이상 현실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출재가 문제를 푸는 본질이며, 결사와 쇄신의 진정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정웅기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승가의 최고선은 부처님의 법과 율

승가에서 싸움이 발생했을 경우, 율장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7멸쟁법(滅諍法)을 제시한다. 싸움을 가라앉히는 7가지 방법이다. 싸움의 내용에 따라 7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승가 구성원들의 임무이다. 이 멸쟁법 가운데 다인어(多人語)라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히 법과 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 가라앉지 않을 경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다인어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다수가 반드시 여법설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다수결 개념과는 의미가 다르다. 만약 투표결과, 비법을 설하는 자의 숫자가 더 많다면 투표관리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즉, 지지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법한 의견을 지지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채택한다는 것이 다인어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여법·비법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투표 관리자로 선발된 행주인(行籌人)이라 불리는 비구가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율을 근거로 판단한다. 표면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한다고 하는 방법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행주인이라는 특정한 비구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방법은 한 개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며 또한 그가 행사할 수도 있는 권력의 남용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인 '출가자들은 오로지 여래가 남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 정진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가는 부처님이 남긴 법과 율을 최고의 선으로 삼아 수행해 가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과 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행자가 승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수행자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기에 행주인을 비롯해 승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비구의 자격 요건은 까다로우며 선발 역시 갈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중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과 율에 대한 해박함, 어떤

한국불교 승가 사건들은
책임감 없는 지도자와
신뢰 못하는 구성원 탓
부처님 법과 율 되새겨야

상황에서든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성냄이나 어리석음·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인물을 동일한 경계 안에 속한 모든 비구들의 만장일치로 신중하게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선발한 후에는 모든 것을 그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맡겨야 한다. 선발된 비구 역시 법과 율에 근거하여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점이야말로 승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갈마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승가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 고들 하지만, 이는 한 단면만을 본 것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갈마는 반드시 여법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이때 지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승가의 앞날은 일부 지도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할은 중대하다. 이는 바꾸어 생각해보면, 지도자를 선출하는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도 승가의 구성원이며 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승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승가는 구성원 모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불교 승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에 존재해야 할 소중한 그 무언가가 많이 사라졌음을 엿보게 한다. 지도자로서 마지막 단 한명까지도 끈질긴 설득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책임감의 부재, 스스로가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양쪽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승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판단은 시작도 끝도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삿된 감정의 개입 없이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또한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도자 역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승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자랑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청소년 종교인권을 주제로 2011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7월 18일 서울 우리함께 빌딩 2층에서 진행됐다.

종교 중요하다는 학생, 하나 없다

2011만해축전 심포지엄

NGO 리서치(소장 윤남진)가 중고등학생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족(38.1%)이 가장 많고, 돈(19.1%) 친구(15%) 건강(10.2%) 학력(6.1%) 권력(4.4%) 여가(3.2%) 다음으로 종교(3%)다. 특히 불교인 중에는 종교가 중요하다고 한 사례는 0%다.

학교에서 종교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 19.7%만이 긍정적이고 32.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종교사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개신교 사학 소속 응답자 26.3% 불교사학 응답자 26.2%가 종교 교육에 대해 부정의견을 내놓았다.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종교관이나 종교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형성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랐다. 7월 1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이 발표한 설문조사다. '청소년 종교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윤 소장은 "종교사학에서의 종파교육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문결과에 개신교를 대표한 청소년문화공동체 10대지기 사무총장 학현동 목사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교육을 하면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믿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학 목사는 "학생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시킨 것은 종교적 사명이었다. 종교자유를 외친 강의석 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교육 자체도 100년 역사의 한국교회의 역사와 가르침일 뿐 강요는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류상태 종자연 자문위원도 "강의석 군의 판결에 대해서 설립 이념에 따라 공교육을 하고 종교교육을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우선하고 공교육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개신교 종립학교에서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청소년에
자기결정권 확대·부여함이
청소년 종교인권 지키는 일

강의석 군에 의해 특정종교 강제교육이 위법이라는 승소 판결에도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을 이유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교적인 강요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종교인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허형범 숭실중 교사는 "학교 예배를 일반 교과목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는 참석이 자유로운 반면 학교 예배는 자유롭지도 못하다"며 "학내 종교접근상황이 시작되기 전마다 항상 참석 여부를 묻고 불참시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공고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윤진 중앙대 교수는 "특정 종교나 종교교육의 주입이나 강요는 청소년들을 뚜렷한 근거없이 무능력자 집단으로 단정 지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사회변화와 청소년 능력의 변화에 따라 자기결정권 확대를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